

건축물 철거 현장 안전 대응책 마련

대구시 건축주택과 지역건축안전팀
2021.10.19

광주시 안전정책관 안전산업팀
2021.10.28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1.10.29

대구시,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시책 마련

대구시가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자 ‘해체 공사장 안전·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에는 따르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체 공사장 전체에 대한 해체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구·군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체 공사장의 환경 관리를 위해 인허가 시 준수사항으로 해체 대상 사업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가설 울타리를 조기 설치할 것과 이에 대한 디자인 표식 활용도 명시하였다. 또 해체계획 이행 여부와 감리의 근무 실태 수시 점검, 해체허가(신고) 처리 여부와 관계자의 현장 관리 실태 확인, 해체공사 담당 공무원과 감리자 및 철거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광주시, 철거 건축물 이상징후 포착 시스템 개발 추진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3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해체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레이저 센서와 3D 스캐닝 등의 기술을 활용해 해체 진행 중인 건축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알려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처럼 구조물의 변형이나 이상징후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가정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서울시가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차 피해로 인근 주택이 정전 등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 시는 실제 발생하였던 붕괴사고 사례를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유사시 적응력을 높이고, 시 차원의 수습체계를 검토했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한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훈련은 영상시스템을 통한 ▲초기대응훈련(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주요쟁점 토론(실무반별 주요쟁점 토론 등) ▲집중토론(붕괴사고에 따른 대책 등)과 이동형 3D 가상재난환경을 이용한 현장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대응훈련 시뮬레이션 영상
출처: 서울시. (2021). 서울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가정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10월 29일 보도자료.